

- ☐ 세종시당 : 044-868-2018
(30100) 세종시 아름서1길 13-1 706호
- ☐ 수석대변인 : 김현미 (010-3974-0020)
- ☐ 대변인 : 김민정 (010-9944-0137)
- ☐ 대변인 : 박범중 (010-9302-7428)

최민호 시장은 내란 우두머리의 하수인을 자처하는가?

법원에서 벌어진 폭동 사태로 국민이 받은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최민호 시장은 법치와 정의를 부정하고 내란을 비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또다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그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불법 계엄과 친위 쿠데타를 방조하는 태도를 드러내더니, 또다시 소셜미디어를 통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무죄 추정과 법치주의를 운운하며 궤변을 이어갔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부정하는 이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눈앞에서 벌어진 내란의 참상을 부정하고, 이를 왜곡하고 두둔하는 데 있다.

온 국민이 불법 계엄령과 위헌적 포고령이 발표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총칼로 무장한 군대가 국회를 부수고 난입하는 충격적인 광경을 생생하게 목격했다. 이미 내란수괴 자신을 포함한 다수의 관련자가 구속되고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끝까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 추정을 운운하며 내란을 내란이라, 불법을 불법이라 부르지 말라는 주장은 국민적 상식과 완전히 괴리된 궤변에 불과하다.

또한, 법치주의를 입에 올리는 최민호 시장에게 묻고 싶다.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를 거부하고, 적법한 법원의 체포영장을 무력으로 저항하며 물리적 충돌까지 야기하려 했던 내란 우두머리의 행태가 법치주의의 정신에 부합하는가? 대한민국 사법과 행정기관의 정당한 명령을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거부하며, 극우 세력을 선동해 혼란을 조장하고 폭동을 부추기는 행태가 최민호 시장이 말하는 법치주의인가?

최민호 시장과 같은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선동과 궤변은 대한민국의 갈등과 혼란을 끝없이 증폭시키고 있다. 이제 이들은 궤변과 역지로 내란 우두머리를 비호하며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헌법을 수호하며 상식을 지키는 시민의 편에 설 것인지 마지막 선택의 순간에 와 있다.

세종시민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은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하고 정의를 부정하는 행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이를 부정하는 세력에게 역사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2025년 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